"요가 자격증 따기·강철 체력 소망 아빠께 띄웠어요"

'국민일보 꿈나눔 캠프' 풍등 날리기 참가 은총이의 꿈

지난해 아버지 잃고 희망 산산조각
어려운 형편 속 남동생 챙기며 공부
다리 부상으로 무용가 꿈도 접어
눈물… 무기력… 결석… 아르바이트
요가 배우면서 자신감… 학교 돌아가
"힘들 때 하늘 보며 아빠께 다짐해요"

국민일보 꿈나눔 캠프에 참가한 강은총양(오른쪽)이 20일 새벽 강원도 강릉의 바닷가에서 풍등에 불을 붙여 하늘로 띄우고 있다. 강양은 풍등에 '요가 자격증 다 따기' '강철 체력'이라고 적고는 "하늘에서 아버지가 지켜보실 것"이라고 말했다.

열여덟 강은총양의 행복이 무너진 건 순식간이었다. 재주 많고 성격이 밝아 언제나 주변에 친구가 많던 아이였다. 웃는 얼굴로 친구들과 앞날에 대해 끊임없이 수다를 떨던 시절은 지난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옛날얘기가 됐다.

은총이의 아버지는 요리사였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다섯 식구 살기에는 부족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둘째 딸 은총이가 하고 싶다는 건 뭐든 지원했다. 예체능에 재능이 있어 한국무용, 발레, 노래 등 하고 싶은 건 다 했다. 노래 연습을 할 때는 악보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몰두하며 행복해했다.

아버지는 지난해 2월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다. 병원에 입원할 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다. 아버지는 "괜찮다. 일어날 거다"라며 은총이를 안심시켰었다.

'딸 바보' 아버지의 빈자리는 컸다. 어머니는 삼남매를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두세 가지 일을 해야 했다. 언니는 대학을 그만두고 돈을 벌기 시작했다. 집에는 막내 남동생과 은총이만 남게 됐다. 은총이는 남동생을 챙기고 집안일을 하며 꿋꿋하게 학교를 다녔다. 그러나 밤에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아버지가 그리웠다. 아버지는 퇴근길에 삼남매의 야참을 챙겨오는 걸 좋아했다. 퇴근길 아버지를 가장 먼저 맞는 사람은 언제나 은총이였다. "밤에 출출할 때 아버지 생각이 간절해요. 그런 밤이면 아버지와 야식 먹는 꿈을 꿔요"라고 했다.

나쁜 일은 잇따라 일어났다. 남동생 아침밥을 챙겨주고 급하게 학교로 뛰어가다 계단에서 굴러 다리를 다쳤다. 무용가를 꿈꿨던 은총에게는 '청천벽력'이었다. 의사는 다리 인대가 손상돼 깁스를 권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생활고로 힘들어하는 어머니에게 짐이 되기 싫었다. 걷는 게 불편해도 견뎠지만 얼마 후 탈이 났다. 피멍이 들고 퉁퉁 부어 혼자 화장실 가기도 어려워졌다.

학교에 빠지게 됐고 무기력해졌다. 모든 일이 귀찮아졌고 멍하니 혼자 집에 있다가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아졌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마음을 다잡았다. "하늘에서 아버지가 보고 있을 것 같아서요…"라고 했다. 다리가 아팠지만 어머니가 퇴근하면 곧바로 쉴 수 있도록 집안일을 했다. 다리가 조금 호전되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학교로 돌아가는 건 뒤로 미뤘다. 돈을 벌고 싶었다.

은총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요가를 배웠다. 아픈 다리에 좋은 재활법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은총이에게 요가는 딱 맞는 운동이었다. 무용을 했던 은총이를 요가 강사가 눈여겨봤다. 은총이에게 요가 강사가 돼보라고 권유했다. 요가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올해는 학교에도 복학했다.

복학 후 요가 자격증에 도전해 3급을 따냈다. "화장실 갈 때도 요가 생각만 했다. 다시 꿈을 꿀 수 있다는 게 좋았다. 옛날처럼 하고 싶은 게 많아졌다"고 했다.

은총이는 올 가을부터 '국민일보 꿈나눔 캠프'에 합류했다. 은총이가 복학한 학교에서 진행된 위기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게 계기였다. "제 꿈이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어 프로그램에 빠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지난 20일 새벽 강원도 강릉 정동진에서 열린 '풍등(風燈) 날리기'에도 나왔다. 새해 소망을 풍등에 담아 날리는 프로그램이었다. 은총이는 풍등에 '요가 자격증 다 따기' '강철 체력'이라고 큼지막하게 썼다. 은총이는 "힘들 때 하늘을 보며 '아빠, 나 잘하고 있지'라고 다짐하곤 해요. 이번에도 아빠가 지켜보셨을 거예요"라며 웃었다.

강릉=글·사진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정종섭 장관, 달동네 '백사마을' 봉사 활동

12월 급여 전액 기부… 연탄·쌀 선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서울시 노원구 백사마을을 찾았다. 이곳은 서울에서도 몇 안 남은 달동네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정 장관은 백사마을의 높은 언덕과 좁은 골목길을 누비면서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등에 겨울용 내의 80벌과 쌀(10㎏) 80포를 전달했다. 7000장의 연탄을 배달할 때는 직접 손수레를 끌고 지게를 졌다.

정 장관이 백사마을을 찾은 이유는 이곳 어르신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정 장관은 지난달 10일 백사마을에서 연탄배달 봉사를 할 때 어르신들로부터 "올해는 경기가 좋지 않아서인지 과거에 비해 후원이 많이 줄어 겨울나기가 힘겨울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정 장관은 그들을 위로하며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다시 찾아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정 장관은 자신의 12월 급여 전액(824만2000원)을 봉사활동 경비로 내놨다. 봉사활동은 진정으로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야 한다는 소신에서다. 장관의 솔선수범에 행정자치부 직원들도 월급 우수리로 마련한 '행복드림기금'을 기부하고, 백사마을에서 함께 봉사활동을 했다.

앞서 정 장관은 이날 오전 남대문 쪽방촌을 찾아 100가구에 도시락과 난방용 부탄가스 2800개를 전달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24일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에서 직원들과 함께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행자부 제공

인사

◆**국토교통부**◎파견△국민대통합위원회 김남균△2015세계물포럼조직〃 소성환
◆**해양수산부**◎전보 및 파견△국제협력총괄과장 오광석△수산자원정책〃 박환준△동해어업관리단장 정상윤△서해〃 정동기△국립수산과학원 서기관 김동욱△허베이스피리트피해지원단 지원총괄팀장 김태기
◆**한국표준과학연구원**△감사부장 문동규
◆**한국조경신문**◇임원△회장 김부식△사장 정대헌◇편집국△편집국장 임광빈◇월간 가드닝△편집장 장현숙△취재부장 정승환
◆**한화그룹**◎승진〈임원〉◇㈜한화/화약△상무보 이응소◇㈜한화/방산△전무 신현우△상무 김중원 손재일△상무보 김동환 심행근◇㈜한화/무역△전무 김은수△상무보 권홍운◇㈜한화/기계△상무보 박상준◇한화케미칼△전무 김평득 한상흠△상무 이성호△상무보 공원국 문홍실 안인수 이태길 장창섭 조재억△전문위원(상무보) 양문삼◇한화첨단소재△상무 김영준◇한화에너지△상무보 김창수◇한화솔라원△상무 김동관△상무보 윤광열◇한화큐셀△부사장 김희철△상무 손계춘△상무보 신상헌◇한화갤러리아△상무보 이현진 정해승◇한컴△전문위원(상무보) 이규림◇한화생명△부사장 여승주△상무보 이병서◇한화손해보험△상무 김태열△상무보 박지호△전문위원(상무보) 김석남◇한화투자증권△상무보 김선철 변동환 이덕출◇한화건설△부사장 최광호△전무 박병열△상무보 김진규 박주현 유택열 윤용상 주영덕
◆**동원그룹**◎선임〈대표이사〉△스타키스트 대표이사 사장 최용석◎승진〈상무이사〉△동원F&B 유통사업부장 박성순△동원홈푸드 구매〃 송명준△테크팩솔루션 경영지원실장 김주교〈상무보〉△동원시스템즈 해외사업부장 송종선

부고

▲**박경원**(전 아하수학원 대표) **경일**(문화일보 문화부 부장)씨 모친상=24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6일 오전 8시(02-3410-6902)
▲**정지석**(전 한미약품 부회장) **유석**(재미 정신과의사) **이석**(건축가) **현애**씨 모친상, **박응범**(이대목동병원 외과교수)씨 빙모상=23일 경기도 분당제생병원. 발인 25일 오전 9시(010-8727-9966)
▲**이경원**(재단법인 송암 이사장, 전 국제피플투피플 한국총재)씨 별세, **이현준**(미국 코넬대 의학과 교수), **준희**(미 BNP은행 이사), **한나**(미국 뉴욕 마운트 사이나이병원)씨 부친상=22일 미국, 발인 26일 오전 9시(현지시간) 뉴욕 마운트 사이나이병원(212-496-8814)

KBS 드라마 '내일도 칸타빌레'의 남녀 주인공 주원(뒷줄 왼쪽 두 번째)과 심은경(세 번째)이 23일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야마하아티스트서비스서울에서 형편이 어려운 예비 피아니스트들에게 디지털 피아노를 증정하고 있다. 야마하뮤직코리아 제공

산타 된 스타들

수익금·출연료·악기 기부 가수·배우 등 동참 잇따라

가수와 배우들이 산타클로스가 됐다.

어쿠스틱 음악을 하는 혼성그룹 로코베리는 지난 22일 배우 손호준과 함께 디지털싱글 '어떤가요'를 발표하고 수익금 중 일부를 기부하기로 했다. 기부는 로코베리와 요리사 샘킴, 패션 디자이너 맥앤로건이 함께 진행하는 'MFF프로젝트'를 통해 시작됐다. 로코베리 측은 "음악(Music) 음식(Food) 패션(Fashion)의 머리글자를 딴 프로젝트는 이런 창작물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자는 것"이라며 "프로젝트를 논의하면서 기부라는 의미 있는 일을 해 보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24일과 26일에는 샘킴과 맥앤로건이 각기 기부활동에 나선다. 샘킴은 자신의 식당에서 음식을 판매하고 남은 수익금, 맥앤로건은 의상을 판매한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할 예정이다.

그룹 씨엔블루(CNBLUE) 멤버 정용화도 자작곡 '별, 그대' 수익금 전액을 '러브FNC'를 통해 기부하겠다고 전했다. 23일 음원 공개 직후 '별, 그대'는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실시간 차트 1위에 올랐다. '러브FNC'는 씨엔블루 소속사인 FNC엔터테인먼트의 사회공헌브랜드로 일종의 CSR팀이다.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유노윤호는 영화 '국제시장' 출연료 전액을 아동복지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기부했다. 유노윤호는 '국제시장'에서 1970년대 톱스타 남진 역으로 특별출연했다.

독특한 기부도 눈길을 끈다. 기부 아이콘인 션은 지난 15일부터 허그챌린지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션이 제안한 캠페인은 올여름 전 세계에 확산됐던 아이스버킷 챌린지 방식을 그대로 차용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3명을 태그하고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 포옹하면 포옹을 받은 사람은 24시간 내 또 다른 3명을 포옹한 뒤 연탄은행에 만원을 기부하는 것이다. 션은 컬투의 정찬우, 개그맨 김제동, 가수 타블로를 포옹 대상으로 정했다.

KBS드라마 '내일도 칸타빌레'의 남녀 주인공 주원과 심은경은 악기음향전문기업 야마하뮤직코리아의 지원을 받아 피아노 구매가 어려운 예비 피아니스트들에게 디지털피아노를 전달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울산시 공무원 봉사왕 박상구 사무관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정을 나눠줄 수 있어 행복합니다."

올해 울산시 공무원 봉사왕으로 선정된 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택시행정계 박상구(57·사진) 사무관은 울산시 공무원 사이에서 봉사 바이러스 전파자로 불린다.

박 사무관은 2003년부터 10년 넘게 복지시설에서 장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1053시간의 자원봉사 활동을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00년부터 매월 목요일 오후 '공무원 자원봉사'를 시작해 2200시간의 봉사활동 기록을 갖고 있다.

박 사무관은 "당시 노인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돌아왔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 이 일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2012년까지 매주 토~일요일 봉사동아리와 함께 요양원·고아원 등에서 청소·목욕 봉사 활동을 했다. 2013년부터 재능봉사로 바꿔 웃음을 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박 사무관은 울산시 '2014 공무원 자원봉사왕'에 선발돼 31일 종무식 때 울산시장 표창을 받는다.

2016년 7월 퇴직하는 박 사무관은 "퇴임하면 더 넓게 재능봉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박미애 대령

에이미 한나 대령

한미연합사 공보실 투톱 여성이 이끈다

한미연합사 내 한국군과 미군 측 공보실장에 양국 여성 대령 2명이 나란히 기용됐다. 육군은 24일 수도방위사령부 정훈공보실장 박미애(50) 대령을 한미연합사 한국군 공보실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미군 측 공보실장인 에이미 한나 대령과 함께 한미연합사의 공보 업무를 끌어가게 된다.

박 대령은 1988년 임관해 육군본부 공보과 총괄장교를 거쳐 5군단 정훈참모, 수도방위사령부 정훈참모 등을 지냈다. 군 홍보 사안에 대해 핵심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시점에 언론에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나 대령은 2012년 6월 한국에 부임해 올해 6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예정이었으나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1년 더 임기가 연장됐다. 그는 오하이호주립대학에서 예술과 과학을 전공한 뒤 1991년 학군장교(ROTC)로 임관해 미군 관타나모기지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에서 공보장교로 근무했다. 육군장관 공보담당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아버지 부시 호흡곤란 증세 입원

'아버지 부시'로 불리는 조지 H W 부시(90·사진) 전 미국 대통령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텍사스주 휴스턴의 병원에 입원했다고 23일(현지시간) 부시 전 대통령의 대변인이 밝혔다.

대변인은 성명에서 부시 전 대통령이 이날 저녁 구급차로 휴스턴의 매서디스트 병원에 실려갔으며 상태를 더 세심하게 살펴보려고 예방 차원에서 입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제41대 대통령인 부시 전 대통령은 제43대 대통령을 지낸 조지 W 부시(68) 전 대통령의 아버지다. 그는 2012년 11월에도 감기와 기관지염 증세로 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한때 중환자실로 옮겨지기도 했으나 기력을 회복해 두 달 뒤인 지난해 1월 퇴원했다. 휠체어에 의지해 거동하는 부시 전 대통령은 지난 6월에는 90번째 생일을 자축하며 스카이다이빙을 해 건재를 과시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